

## 정보격차 연구의 쟁점 변화와 그 함의\*

이 명 진\*\*, 박 기 태\*\*\*

**요약** 이 연구는 정보사회의 여러 문제 중에서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가 정보화에 대한 낙관적 기대, 정보접근의 문제 그리고 정보격차활용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가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가져다 줄 긍정적인 이익에 초점을 둔 논의가 많았다. 정보격차 문제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사회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정보격차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실제로 정보접근성을 해결하여 정보격차를 줄이려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에 대한 단순한 접근성이 아니라 정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양적인 측면을 넘어서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가 정보에 관한 활용 욕구나 수용 태도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키워드 : 정보격차, 정보불평등, 정보접근성, 정보활용, 정보문화

## The Issue Change of Digital Divide Studies and Its Implication

Myoungjin Lee, Kitae Park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the studies of digital divide. Especially, it stresses the fact that the focus of the studies has changed from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to information literacy. Despite of rapid growth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existing digital divide had raised the concern of the inequality in term of quantity of information gap. The recent issues of information literacy and knowledge divide had further brought our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widening inequality in terms of quality of information gap. In view of the high possibil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being used as the ways for better social reward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needs and acceptance attitud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studies of digital divide.

Keywords : digital divide, information inequality, information accessibility,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culture

2009년 9월 15일 접수, 2009년 9월 16일 심사, 2009년 9월 25일 심사완료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한국연구재단-2009-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토대연구)-KRF-2009-322-B00013)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leemj@korea.ac.kr)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kitae80@korea.ac.kr)

www.kci.go.kr

## I. 머리말

정보사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정보통신기술이 그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는 편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현재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대한 양의 정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유통되고 있다(Spinello, 1995; 권태환·조형제, 1997; 유홍준·이정환, 1998. 손연기·한세억, 1999).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의 여러 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자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개인들의 일상 속에 정보통신기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이명진·배영, 2008).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가 인간의 삶의 질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었다. 경제 부문의 경우, 정보사회에서는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처럼 제한된 원재료에 의지하는 산업이 아니라 무한하고 비배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중심을 이룰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고 이러한 혁신이 창조적 파괴와 경제 발전을 불러온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에 경제 부문의 중심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동하며, 기술직·서비스직·관료직 종사자들이 급격히 증가한다(Bell, 1973; Piore and Sabel, 1984).

정치 부문에서는 정치참여의 확대라는 긍정론이 제기되었다. 정보통신기술과 개방 네트워크의 확산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참여가 촉진된다는 것이다(Grossman, 1995).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실시간 유통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그간 정치적 청중에 머물러 있던 일반 대중이

적극적인 정치참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김용철·윤성이, 2000).

사회 부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기존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되었다. 정보 지식 전문가가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점차 사회의 계급과 권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맑스가 주장한 생산수단의 소유에 기초한 계급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Bell, 1973). 물론 이러한 전망이 계층이나 계급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보 기술을 담당하고 통제하는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이 하나의 새로운 계층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귀속(ascriptive) 지위가 아니라 교육과 재능을 통해 성취(achieved) 지위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성취 지위가 사회의 주요 차원으로 등장하는 과정이 바로 현대화 혹은 합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Lareau and Conley, 2008).

그러나 정보화에 따른 경제·정치·사회 영역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점차 배타적인 이윤 창조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영리자원으로써 활용되는 특성 때문에 경쟁자에 비하여 빠르게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개인과 조직이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각 사회나 국가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보의 보유와 효율적 관리, 이용능력의 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가 주는 경쟁적 우위로 인하여, 정보의 생산·처리·유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정보의 소유와 통제를 주도함으로써(김문조·박형준, 1996)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상품과 부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도구적 수단이 된다.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치 무관심이 정보화로 인해 유지되거나 심지어 강화될 수도 있다(윤성이, 2008).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획득할 수 있

는 정보의 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위 따분한 것으로 인식되는 정치관련 정보의 접촉 빈도 및 접촉 수준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망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일부 집단의 효과적인 선전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기에 대중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정보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관심 영역에만 집중하게 하여, 정치를 개인과 분리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정보통신기술구조가 배태하고 있는 선택적 친화성(selective affinity)으로 인해 특정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와 이점을 누릴 수 있기에 정보격차가 기술발달과 더불어 심화될 수 있다(Shapiro and Varian, 1999; Poster, 1998; Kahn and Kellner, 2004).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은 그 특징상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이 크고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대부분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전문지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숙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능숙하게 다룰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정보통신기술의 접근과 이용에서 배제된다.

게다가 유비쿼터스 시대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음성과 데이터 통합, 유선과 무선 통합, 통신과 방송 융합, 홈 네트워킹 등 통신 서비스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정보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결국 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계층들에게는 새롭게 창출되고 급증하는 지식, 정보, 기술을 최신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과정이 되어 이들은 취약계층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김은정, 2007). 결국 정보소유 여부 및 보유한 정보의 질에 따라 새로운 계급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의 누적적 효

과로 인하여 더욱 확장되고, 심지어 세대 간에 세습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정보사회에 대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의 동향과 쟁점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정보화에 대한 낙관적 기대, 정보접근의 문제 그리고 정보격차활용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가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가져다 줄 긍정적인 이익에 초점을 둔 논의가 많았다. 그런데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초점을 둔 정보격차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격차 문제를 해결한다면, 앞서 언급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에 대한 단순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량이 급증한 만큼 다양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선택해야하는 개인의 주체적 선택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김문조, 2008).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 기존 논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의 변화가 가진 함의와 앞으로의 정보 격차 연구의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 II. 정보화와 낙관론적 접근

정보통신기술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영향은 단순히 인간의 의사소통 양식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심지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대한 낙관론은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더 심화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미래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낙관적 견해는 기술 결정론을 근거로 시간과 기술의 합작은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기존의 물질적 문제들을 넘어

심지어는 정신적인 문제들까지도 제어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본다(김영미, 2001). 일부는 정보통신기술 자체의 추진력에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낙관론자들은 기술발전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단순한 인과관계만을 갖는 것으로 인식한다. 기술의 사회적 영향 내지는 사회와의 관계를 도외시함으로써 정보기술의 발전 이유와 그 경로에는 관심이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산업사회에서의 기술발달과 이것의 활용이 초기단계에는 격차를 유발시켰지만 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그러한 격차를 완화시켜 나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술결정론적 입장은 기술의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오히려 정책의 개입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초기 미래 학자들은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정보화시대에는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자유롭게 유통되는 정보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으며 나누어 써도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보유함으로써 정보전달의 매체에 대한 접촉기회가 증가되고 나아가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논리를 지향하였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보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주로 확산(diffusion)이론에 근거한다(김정석·심상완, 2001). 이 이론의 기본논리는 모든 혁신은 S자형의 확산 과정을 보이며 비록 혁신의 내용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혁신의 가격 하락과 혁신의 이익에 대한 사회성원의 이해증진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혁신 초기의 격차가 점차 완화된다는 것이다(조정문, 2001). S모형에 의하면 보급 초기에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혁신을 수용하여 기술의 수용과 확산이 느리지만, 확산의 성숙기에는 다수가 기술을 수용하게 되어 기술 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대부분이 수용하게 되는 시점에는 기술 확산 속도는 늦으나 포화상태로서 누구나 이용하게 되는 단계가 된다. 인터넷 역시 현재는 보급률이 낮지만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인 매체가 될 것이다. 낙관론

자들은 인쇄술, 라디오, TV등과 같은 이전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들 또한 단순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과거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강조한다.

이러한 낙관론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정보의 접근성 여부에 따라 기존의 권력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음을 강조하는 ‘후기산업사회론’의 토플러(Toffler, 1980; Toffler, 1991), ‘디지털사회론’의 네그로폰테(Negroponte, 1996), 정보의 생성과 보급에 기초한 경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네이비트(Naisbitts, 1982) 등이 있다. 낙관론자들은 앞으로의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여러 사회 문제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본다. 낙관론자 중의 한 사람인 컴페인(Compaine, 1986)은 고도 정보사회가 되면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비용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렇게 낙관론자들은 급속한 미디어 사회의 발전이 새로운 갈등 구조를 포함한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한다. 이들에 의하면,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초기에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집중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정보 사회에 대한 낙관론적 시각의 대부분은 정보통신기술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제적 시각은 많은 경우, 앞서 살펴봤던 미디어 사회에 대한 낙관론적 시각과 연관성이 높고 기술결정론적 시각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정보기술혁명 → 생산방식 및 경제구조의 변화 → 정치과정 및 권력구조의 변화 → 생활양식 및 소비양식의 변화 → 문화변동이라는 선형적 인과관계를 상정한다(박형준, 1997).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적인 시각은 정보사회의 위험

을 간과한 한계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면, 낙관론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업조직과 경제적 거래관계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줌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영희(1999)는 기업과 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정보화의 영향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보화는 국가의 산업 구조 조정과 자본의 리엔지니어링 전략과 결합되어 있고 노동 유연성의 극대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보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적 구조와 시장경쟁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표출되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조효래, 1996).

정보사회를 희망적으로 그리는 초기의 낙관론자들은 정보격차를 사회문제로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존재하더라도 정보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보았다. 그러므로 낙관론자들은 정보의 속성이 갖는 한계 및 기존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보화는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임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급되지 않은 영역이 상당부분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단절현상도 이러한 낙관론에 대한 중요한 비판 근거가 되고 있다(조정문, 2001).

### Ⅲ. 정보격차와 정보접근성

#### 1. 정보사회 문제와 정보격차

정보사회에 대한 비판론자는 낙관론자들의 전망과는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심

화될 것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론의 학자로는 '통제혁명론'의 제임스 베니거(James Beniger), '테일러주의 사회론'의 프랭크 웹스터(Frank Webster), 그리고 '감시사회론'의 게리 맑스(Gary Marx)와 데이비드 리온(David Lyon) 등이 있다. 실러(Schiller, 1996)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고도 정보사회를 낳을 것은 자명하지만, 그 안에서의 정보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의 분화 및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셀하이퍼(Selhifer, 2002)는 인터넷 이용자 내에서 초차도 초기 수용자와 후기 수용자 사이에서 이용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정보격차나 정보 불평등의 문제와 더불어서, 미디어의 과도 정보화를 지적한 비판적 전망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취사선택되는 개인들의 행위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과도한 분절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파편화를 만들어 낸다. 즉, 정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사회 갈등의 구조와 동학이 더욱 복잡화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 격차, 표현의 자유 등의 제반 문제들을 둘러싼 갈등의 잠재성은 더욱 더 커지고 복잡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정보사회의 불평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정보격차이다(서이종, 2000). 정보격차는 정보 수용량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전반의 정보량이 증대되는 동시에 정보부자와 정보 빈자간의 간격 또한 넓어지는 사회적 현상으로 그 양적·질적 격차 자체에 초점을 둔다(김종길, 2001).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정보가 다량으로 배포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이용에 있어서는 일부가 배제되도록 구조화된 것이 정보격차이다. 정보격차 개념은 정보매체에

1) 대표적인 낙관론자 중 하나인 네그로폰테도 비판론자의 견해와 비슷하게 모든 기술이나 과학의 발전은 그 나름대로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음을 직시하며, 앞으로 겪게 될 위험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Negroponte, 1996).

대한 접근 여부뿐만 아니라 정보 매체에 접근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사용에서 나타나는 모든 차이가 정보격차는 아니며, 사회경제적·문화적·지정학적·인종적 요인 등에 의해 초래되는 차이가 정보격차이다.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정보화에 대한 낙관론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보선진국에서는 일찍이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의 핵심이슈로 부각되어 국제회의의 주요의제로 채택되고 있다(김종길, 2001; 김규일·이동수, 2001). 정보격차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기존의 다른 어떤 격차보다 정보격차로 인한 파급효과와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최문경·윤영민, 1998).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정보사회에서도 기존의 산업사회와 동일한 부익부빈익빈의 원칙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이는 정보사회에서 정보부자가 보유한 자원이 정보빈자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정보빈자보다 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부자는 보유한 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sup>2)</sup> 정보격차는 정치 영역에서 사회·문화적 단절과 갈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의 흐름에 분절을 일으켜 시민사회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접근성의 차이가 기회 균등의 원칙을 훼손시켜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최두진, 2002; 방민석, 2004). 또한 경제 영역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핵심적인 생산의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의 소유 및 정보이용능력 자체가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보이용능력이 정보화에 기반한 경제체제에서 필수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영역에서는 소유한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계급의 분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문화적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그 차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박해광, 2003).

## 2. 정보접근성에 관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

한국사회에서 정보격차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루어졌다. 특히 정부가 2001년 1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연구 쟁점으로 급속하게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격차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쉽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몇몇 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구자순(2007)은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라는 주제어를 사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에 걸쳐 5개의 학회지<sup>3)</sup>에서 총 82편의 논문을 검색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사회학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정보격차의 문제이다. 1997년 한국사회학에 온라인 내용물의 자율 규제 방안과 관련한 주제로 첫 논문이 게재되었다. <표 1>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이 연구의 연구주제인 정보격차와 관련하여서는 1998년 정보 불평등의 구조와 과정, 정보능력의 성별격차를 주제로 한 논문이 게재된 이래 꾸준히 논문이 발간되고 있다. 비록 사회학으로 그 연구의 영역으로 제한한 한계점이 있으나 정보격차를 주제로 하는 연구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2) 논평자의 지적과 같이 정보격차의 결과는 한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와 관련한 연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연구내용 역시 정보격차의 원인과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에 따른 정보격차 실태 정리, 정보격차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다.

3) 국내 주요 사회학 관련 학회들 가운데 사이버공간사회학에 관한 논문을 3편이상 게재하고 있는 한국사회학, 사회이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정보와 사회, 현상과 인식을 대상으로 한다.

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연구의 주제 역시 대부분 정태적인 불평등의 구조 및 정보접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연구방법과 이론에 있어서도 일부 편중된 이론에 근거한 연구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과학 영역으로 선행연구 검토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다양한 연구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 유형은 정보격차의 현황, 특히 정보접근성이 낮은 집단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장애인 정보격차(변용찬, 2001), 성별간 정보격차(김영미, 2001), 저학력자 정보격차(정지선 외, 2001), 지역간 정보격차(김병록, 2001; 경상북도연구단, 2001)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둘째, 다른 유형의 연구는 이러한 정보격차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김규일·이동수(2001)와 김영미(2001)는 사회경제적 불평등한 구조를 정보격차의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사회경제적 상층은 새로운 정보 기술 및 매체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는 정보접근성이 지속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기존의 최신 정보를 습득하기도 전에 새로운 정보가 등장함으로써 계층 간의 차이가 계속해서 확대된다. 이렇게 정보화의 혜택이 계층사이에 불균등하게 주어진다면 정보격차는 기존의 계층 불평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낼 위험성을 안고 있다(변용찬, 2001). 경상북도연구단(2001)과 김병록(2001)은 정

〈표 1〉 정보격차 연구 논문의 주제, 이론 및 연구방법(1997년 - 2007년)<sup>4)</sup>

연도	연구주제·학회지	연구주제		
		한국사회학	정보와 사회	기타 학회지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네오맑시스트, 사회구조론, 확산론, 조사자료 및 문헌연구)</li> <li>정보능력의 성별격차(사이버공간의 성별격차해소 가능성과 사이버페미니즘, 로지스틱회귀분석)</li> </ul>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정보화촉진방안(정보화마인드와 공론의 장, 이론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와 사회문제화</li> </ul>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재고(실러의 정보격차론 등 다양한 이론적용, 이론 연구)</li> <li>우리나라의 정보격차에 관한 지수접근(네오맑시스트 등 다양한 이론, 회귀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기술 활용정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sup>5)</sup></li> </ul>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가 정보접근성에 미치는 영향</li> </ul>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층 여성의 디지털 격차에 관한 연구(사회구조적불평등, 정보문화진흥원 조사자료이용)</li> </ul>	

출처: 구자순 (2007) 재구성

4) 구자순(2007)에 주제, 이론 및 연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록하지 않았다.

5) "정보기술 활용정도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의 경우, 정보격차의 1차적인 논의를 벗어나 이 연구가 추구하는 정보격차의 결과에 관한 연구로 판단되어서 정보격차가 아닌 사회문화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보격차의 문제를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지역 간 정보격차는 그 동안 정보화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대체로 농촌사회에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달이 늦고, 농촌지역이 정보화 취약계층의 특성을 대부분 포괄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우 정보통신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슈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동일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지선 외, 2001). 따라서 사회통합과 복지의 차원에서 정보빈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박선희, 2002). 보편적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정보에의 접근과 이용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만이 아닌 정보정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정보격차해소는 정보사회가 일부 특권계층의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균등한 사회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류석상, 2000; 김병록, 2001; 조정문, 2001).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박선희, 2002). 앞서 언급한대로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은 다양한 정책의 실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정부차원에서는 농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서비스제공, 지역 정보이용 시설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정보통신 요금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 같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민간차원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전산망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렇게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정보격차에 대한 많은 연구는 기술적 분석과 양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심상완·김정석, 2001). 또한 상당수의 연구가 정보기구나 정보매체의 접근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황혜선, 1999). 단순히 평가한다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양적인 문제에 집중하면 정보격차 문제가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실제로 정보격차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지 10여년이 지난 2008년, 정부에서 작성한 보고서까지도 정보격차는 접근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약자에 접근성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이종(2000)이 주장하듯이 정보격차에는 양적·질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은 적응력과 해독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능력 차이는 단순한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능력과 생활습관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정보격차는 교육, 직업획득, 문화생활영위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기회를 제약하여 더 큰 불평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김문조, 2004).

#### IV. 정보 활용의 문제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사회가 정보격차 문제를 인식한지 약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의 해소는 정보접근성의 향상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결국 사회구성원들이 그 기술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입장은 기술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철학, 그리고 선택을 반영한다는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에 근거한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정보격차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보격차는 기본적으로 정보기기의 이용과 접근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의 기회와 정보이용의 능력에 의해 개인의 삶의 질과 기회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박영미, 2004), 그 효과로 인하여 정보격차가 구조화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정보화가 진행되고 정보의 보편성이 증대되면서 보편적 접근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에, 정보의 주체적 향유와 관련된 문제(김문조·김종길, 2002)를 포함하는 정보격차의 결과와 그 질적 차이를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 영역의 발굴이 필요하다.

## 1. 정보격차의 사회적 영향

권기창(2008)은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부와 권력이 정보사회에 그대로 전이되어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S자형의 확산과정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정보격차의 완화가 일어나지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보급될 경우 일정계층만이 향유함으로써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며 정보격차의 심화가 일어난다(김영미, 2001).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고급정보를 특정계층이 독점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부의 편중, 신분격차의 심화가 발생하여 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신분의 고착화를 만들어낸다(최두진, 2002).

이러한 논의는 정보격차가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으로 작용하는 매커니즘을 보여준다. 정보 향유의 문제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획득하는 정보의 질과 그 활용이다. 정보는 산업사회의 자원과는 달리 비소모성·비이전성·비분할성·누적성의 속성을 갖는다(김규일·이동수, 2001). 이러한 속성으로 인하여 접근 및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접근 및 활용에서는 배제가 발생하여 불평등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

김문조(2008)는 최근 미디어 분석에서 가장 유효한 것이 기술체계의 내적 연관성과 외적 맥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술사회론적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로서 상호작용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히 인간을 매개하는 기술과 다르게 정보통신 기술, 즉 미디어 기술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함으로써 보다 더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이전의 매스미디어 구조에서는 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의 역할과 기능이 고정적이었지만, 새로운 매체 환경 아래에서는 그 관계가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박창호, 2003). 다시 말하면, 정형적이던 이분법적 구분으로부터 사람들은 더욱 더 개인화되고 서비스지향적인 정보활동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간다. 김종길과 김문조(2006)는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은 인간의 의식적 측면에서는 자아 중심적(self-centered society) 사회의 도래를 주장하고, 행동의 측면에서는 더욱 더 개인화된 자아지향성의 확대를 가져 올 것이라 주장한다.

정보의 생성, 확산, 소비의 정보주기(information frequency)에 대해서 언급한 하틀리(Hartely, 2003)에 의하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정보의 소비주기는 급격하게 짧아질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가변적(volatile)이고 개인적(private)으로 형성되며, 지식형태도 점점 더 루머나 가십성으로 변해가고 있다. 정보주기가 가변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들이 보다 더 개인적인 자기인식에 기초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주기의 단축과 비슷한 측면에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급속히 증가하는 변화 속도일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정보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기술의 변화는 사회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발생한 사회의 불안정성은 급격한 변화와 팽창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도한 정보화의 측면, 즉 정보 과잉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와 기술 발달에 의해서 추동된 초(hyper)정보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

회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가지게 하고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체계 또한 흔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구교태·최현주, 2008). 이러한 경향은 상대주의적이고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 기반을 둔 세계관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광범위하고 전폭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포스트모던한 사회를 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게 만들고,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간다.

## 2. 정보격차의 새로운 연구 방향

김문조·김종길(2002)과 권기창(2008)은 정보격차의 원인과 그 분화를 1~3차로 구분하고 있다. 1차(1세대)의 경우 개인의 경제력에 기반한 정보 접근성의 차이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2차(2세대)의 경우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한 정보의 홍수 가운데 정보 활용 능력에 의해 정보격차가 발생하며, 3차(3세대)의 경우는 정보격차의 누적으로 인하여 정보격차가 문화 권력으로 진화하는 것이다(김문조·김종길, 2002). 2차와 3차의 경우 정보활용의 기회가 아닌 정보의 주체적인 활용과 활용도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의 구조화가 그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격차 연구는 정보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반과 환경 마련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김문조, 2004). 다양한 접근 인프라의 확충으로 한국사회에서 정보에의 접근 기회의 차이는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가 간단한 오락 내지는 온라인 게임 등에만 이용되는 현실은 접근성의 증대가 정보격차의 해소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의 주요 쟁점인 정보격차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정보접근성을 유일한 주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정보에 접근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활용이다(박선희, 2002).

오늘날의 정보격차는 경제적인 영역으로부터 문화

적인 영역에 까지 관련된 복잡다단한 형상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초기에 이용되던 바와 같이 단순히 정보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에서 이제는 사회·문화적 활동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유지연·김희연, 2005). 그러므로 정보격차 문제를 접근성만으로 집중하여 정보격차 전체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김종길, 2004). 정보접근성의 개선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는 생활습관을 비롯한 라이프스타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창발효과를 통해 사회적 과정에서 배제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보 활용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단지 정보의 분배 면에서 격차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불평등한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정보격차 연구의 방향을 단순히 정보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격차, 그리고 경제적 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요인으로 정보이용자들의 활용과 관련한 정보격차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박해광, 2003).

## V. 토의

한국사회에서 1990년과 2000년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정보화를 들 수 있다.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로 인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주제 역시 다양하다. 초기에는 정보산업과 경제, 노동시장 같은 거시적 변화와 정보 불평등, 사이버 범죄 같은 정보사회의 역기능이 주로 다루어졌다. 특히 정보사회의 역기능 문제는

정부기관과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사이버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과 사회관계 변형에 지속적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며, 1인 미디어에 기반한 사회네트워킹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이 정치적으로 점차 중요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사이버공동체, 사이버민주주의, 사이버공간의 사회자본 같은 심층적인 주제가 포함되고 있다. 연구방법은 온라인 조사, 사이버 공간의 접속과 활동 같은 자료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특히 사이버 공간의 접속과 활동에 관한 전자 기록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분석의 편이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아울러 담론분석, 참여관찰 같은 질적 연구 방법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구자순, 2007).

이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주제 중에서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특히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가 정보접근의 문제를 넘어서 정보 활용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던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격차가 그 자체에 그쳤지만, 이후에는 정보 활용의 격차로 발전하여 사회의 맥락 속에서 다른 요소와 결합하는 상호연관관계를 갖는다(서이종, 2000; 김종길, 2004). 최근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 활용이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그 정보를 삶에 활용하는 낮은 연결 능력으로 인해 이후 정보에의 접근과 활용에 있어 일련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격차는 일종의 지식격차(knowledge divide)와 문화격차(cultural divide)를 만든다. 이러한 격차는 정보빈자의 정보 활용의 습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여러 잠재된 기회를 제약하여 개인의 삶 자체를 제약한다. 즉, 정보의 필요성과 활용방법을 개인의 경제적 요인, 교육, 직업 생활의 약점으로 인하여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정보격차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으로 경제·교육·문화 불평등을 생산·확대·전이시키는 것이다. 정보에 접근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부재하기에 정보 빈곤을 자초하는 것이다.

정보사회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고 그러한 생활양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제적·직업적 표상을 만들어 기존 산업사회와는 상이한 배제의 기제를 이용한다(서이종, 2000). 문화가 자기 정체성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문화적 기회의 차이는 정체성의 차이를 만들어 삶의 차이를 생산할 것이다. 특히, 생활방식 등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정보와 결합시켜 문화적 자본 및 내적 성향의 차이를 만들으로써, 개인의 정체성에 새로움을 부여하고 문화적 차이를 부각시켜 계급간의 차별성을 극대화한다. 그러므로 정보 접근과 이용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계급의 문화적 성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해광, 2003).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접근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그 접근성을 활용해서 향유하게 될 문화적 혹은 심미적 욕구, 정보화 마인드 등 비경제적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다(김문조, 2004).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매우 상이한 지식체계를 습득하고 그에 기초하여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정보격차에 따른 문화적 격차와 갈등의 심화도 주목할 만하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각 집단 간의 갈등 양상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은 많은 경우 사이버공간이 보편타당한 소통의 공간이기보다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 개인들의 담론의 공간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담론을 주도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출현도 검토해야 한다. 많은 담론 주도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컴퓨터 사용을 생활화하고 정보 기술을 초기사용자의 형태로 선점하여 수용함으로써 집단의 독특한 전문성을 통해 기존의 여론 선도층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이러한 집단이 주도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정 담론은 계급의 특수한 사고와 신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수성이 다른 집단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정보격차의 문화적 단면은 기존의 정보격차와 관련한 논의의 축을 사이버공간에서 누가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조건과 환경은 어떤 것일까라는 문제로 이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보격차로 인한 문화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불평등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와 문화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불평등은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는 정보격차 분야의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격차의 문제는 보다 복잡화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보격차의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음성과 데이터 통합, 유선과 무선 통합, 통신과 방송 융합, 홈 네트워크 등 통신 서비스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새롭게 창출되고 급증하는 지식, 정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수용 기반이 낮은 계층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취약 계층으로 고착될 수 있는데다가 그 격차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김은정, 2007). 아울러 정보량이 급증한 만큼 다양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는 개인의 주체적 선택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름에 따라 단순한 정보접근성이 아닌 정보 활용의 측면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김문조, 2008).

이러한 점에서 이호영 외(2006)와 최두진 외(2009)는 중요한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정보격차가 내포하는 다양한 측면을 기술이라는 단일차원으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정보접근성 문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의 원인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방법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정보격차가 기술적 차원이외에도 경제, 사회, 문화적 차

원의 원인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접근과 활용은 물론이고 정보에 관한 활용 욕구나 수용 태도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질적 정보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이용에 대한 자기 성찰과 인식 능력을 포함하는 문화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격차 연구 초점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 첫째,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정부 정책은 정보 접근 기회의 평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네트워크 접근성 향상이라는 물리적인 부분에만 정책의 지향점이 있었다. 또한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도 노년층 및 주부, 장애인과 같은 상대적 정보 소외계층의 사용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 교육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활용' 능력의 향상 측면보다 컴퓨터 부팅으로부터 웹서핑, 이메일의 사용 등에 한정된 '사용'의 측면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활용'의 측면에서 정보화 교육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경제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 지역사회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건강과 보건과 관련된 교육 분야에 정보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오프라인의 교육과도 연계도 할 수 있다. 기존의 지역 주민 센터와 복지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의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지역 복지관 및 대학 기관 등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무료 내지는 낮은 비용에 고급정보를 교육함으로써 교육 소외계층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미 상당부분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에 정보교육을 포함시킨다면 정보 활용격차의 해소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이명진, 2003).

둘째,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정보서비스 제공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정보 활용 교육이 곧바로 정보 활용 격차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일상생활과 괴

리된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의 정보습득욕구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 범주별로 차별화된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계층별·연령별·성별·지역별로 정보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친사용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활용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정부가 정보화 촉진의 목적으로 실시한 여러 행사의 경우 정보소외계층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계층에 대한 배제가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정보격차의 확대를 가져왔다(김문조·김종길, 2002). 그러므로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한 이질감이 큰 정보약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특화된 정책 및 행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사는 정보사용능력의 제고와 함께 수용격차해소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참고문헌

- 경상북도연구단 (2001). “경북농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실천방안.” 『한국지역정보학회지』, 4(1): 253-274.
- 구교태·최현주 (2008). 「미디어과잉과 사회의 불확실성의 증가」.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구자순 (2007). “사이버공간에 대한 한국사회학의 연구 동향: 1997-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1): 197 - 240.
- 권기창 (2008).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성과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375-396.
- 권태환·조형제 편 (1997).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미래미디어.
- 김규일·이동수 (2001). “정보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정보격차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2): 315-333.
- 김문조 (2004). “정보화와 한국사회 불평등체계의 변화.” 『담론201』, 7(1): 5-41.
- 김문조 (2008). 『통신정책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문조·김종길 (2002).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정책적 재고.” 『한국사회학』, 36(4): 123-155.
- 김문조·박형준 (1996). “정보화사회의 부작용과 사회정책의 방향.” 『정책포럼』, 20: 14-53.
- 김병록 (2001). “전남도 지역주민간 정보격차.” 『광주·전남행정학회보』, 8: 147-163
- 김영미 (2001). “인터넷과 여성, 그리고 정보격차.” 『한국지역정보학회지』, 4(1): 65-81.
- 김용철·윤성이 (2000).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16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34(3): 129-147.
- 김은정 (2007).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세대통합형 지원 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195-220.
- 김정근 (2009). 『온라인 커뮤니티 ‘저항의 본거지’』, 서울: 위클리경향.
- 김정석·심상완 (2001). “한국의 정보격차 추이(1995~2000) 분석.” 『동향과 전망』, 50: 247-271.
- 김종길 (2001). “‘신기술’ 확산에 따른 기술사회적 역기능의 전개과정 및 대응 전략.” 『과학기술학연구』, 1(1): 235-259.
- 김종길 (2004). “정보사회 전변화 시대의 새로운 도전 ‘인터넷 활용격차.’” 『사회과학연구』, 10: 157-193.
- 김종길 (2005). 『접속시대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종길·김문조 (2006). 『디지털 한국사회의 이해』. 서울: 집문당.
- 대한민국 정부 (2008). 『2008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대한민국정부.
- 류석상 (2000).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 추진 정책과 전망.” 『정보화 동향분석』, 통권 156호.
- 명승환 (2002).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내 현황분석 및 문제점: 주민정보이용실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5(2): 25-55.
- 박선희 (2002). “디지털화의 함의와 정보사회의 쟁점.” 『조선대 지역발전 연구』, 7(2): 159-175.
- 박영미 (2004). “정보복지를 위한 정보격차해소정책에 대한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2): 119-143.
- 박창호 (2003). “차별화 우리 사회: 정보 사회, 바이오테크 사회에 있어서의 빈부 문제와 차별: 디지털 디바이드, 정보차별인가 정보자유인가?” 『사회이론』, 23: 175-209.
- 박해광 (2003). “정보격차의 새로운 경향.” 『경제와 사회』, 23: 175-209.

- 회], 59: 78-102.
- 박형준 (1997). “정보화 사회론의 쟁점들.” 「동향과 전망」, 서울: 한울.
- 방민석 (2004).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방안.” 「지역개발논집」, 15: 84-106.
- 변용찬 (2001). “장애인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55: 39-50.
- 서이중 (2000).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화와 사회문제화.” 「정보와 사회」, 2: 68-87.
- 손연기 · 한세익 (1999). 「정보사회와 정보문화」 서울: 금왕출판사.
- 심상완 · 김정석 (200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정보격차의 다원모형분석.” 「한국인구학」, 24(2): 235-253.
- 유지연 · 김희연 (2005).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해소 이슈 재검토.” 「정보통신정책」, 17(15): 1-19.
- 유홍준 · 이정환 (1998). “정보화시대의 경제.” 한국언론학회 · 한국사회학회 편. 「정보화 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세계사. pp. 198-216.
- 윤성이 (2008). “온라인 정치참여 연구의 동향과 쟁점.” 「정보화정책」, 15(3): 3-20.
- 이명진 (2003). “지역사회 액션프로그램과 사이버공간.” 한준상 외, 「지역공동체문화발전론」, 서울: 원미사.
- 이명진 · 배영 (2008).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소비자 문제의 특징과 그 함의.” 「정보화정책」, 15(2): 62-76.
- 이영희 (1999). “정보화와 고용 및 노동.” 「시민이 열여가는 지식정보사회」, 서울: 크리스찬아카데미.
- 이호영 · 장미혜 · 박현주 (2006). 「문화자본이 정보불평 등에 미치는 영향」.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지선 · 장원섭 · 손연기 (2001). “저학력 · 저능력 계층을 위한 성인인적자원개발 방안: 정보격차해소방안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7(2): 25-54.
- 조정문 (2001).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 및 해소 정책.” 「정보과학회지」, 19(9): 26-36.
- 조효래 (1996). “정보화 기업 · 노동의 변화.” 「사회과학연구」, 3: 185-203.
- 최두진 (2002).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특성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서울.
- 최두진, 김은정, 최창호, 양희인, 이윤희, 정영수 (2009). “정보문화 이슈 현안과 과제.” 「KADO 이슈리포트」, 6(1): 1-52.
- 최문경 · 윤영민 (1998). “정보능력의 성별 격차: 사회문제인가?”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 68-91.
- 황혜선 (1999). “정보격차의 요인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원칙.”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0(4): 279-297.
- Beck, U (1992). *Risk Society*, London: Sage.
-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The Basic Press.
- Compaine, Benjamin M. (1986) “Information Gaps: Myth or Realities?” In Compaine(ed.),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105-118*. Cambridge: MIT Press.
- Grossman, L. K. (1995). *The Electronic Republic: Reshaping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Viking.
- Hartley, J. (2003). “The Frequencies of Public Writing: Tomb, Tome, and Time as Technologies of the Public.” In H. Jenkins & D. Thorburn, *Democracy and New Media*. Cambridge: MIT Press.
- Kahn, Richard and Kellner, Douglas (2004). “New Media and Internet Activism: From the ‘Battle of Seattle’ to Blogging.” *New Media Society*, 6: 87-95.
- Lareau, Annette and Dalton Conley (2008). *Social Class: How Does It W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Naisbitt, J., Megatrends (1982). *Ten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 New York: Warner Books.
- Negroponte, N. 저 · 백옥인 역 (1996). *Being Digital*, Vintage. 「디지털이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Piore, Michael J. and Charles F. Sable 저 · 강석재 · 이호창 편역 (1984). 「생산혁신과 노동의 변화 - 포스트 포드주의 논쟁」. 서울: 새길.
- Poster, M · 이미옥 · 김준기(역) (1998). 「제 2미디어 시대」. 서울: 민음사.
- Schiller, H (1996). *Information Inequality: the Deepening Social Crisis in America*. New York: Routledge.
- Shapiro, Carl and Hal R. Varian (1999).

- Information Rules: A Strategic Guide to Network Economy*.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Hannes Selhofer, Tobias Husing (2002). *The Digital Divide Index - A Measure of Social Inequalities in the Adoption of ICT*. [http://www.empirica.com/empirica/publikationen/documents/Huesing\_Selhofer\_DDI\_X\_2002.pdf]
- Spinello, Richard A. (1995). *Ethical Asp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New Jersey: Prentice Hall.
- Toffler, Alvin (1980).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 Toffler, Alvin (1991). *Powershift: Knowledge, Wealth, and Violence at the Edge of the 21st Century*. New York: Bantam.
- Webster, Frank (1995).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New York: Routledge.